



보도 일시	2023. 3. 24.(금) 14:00	배포 일시	2023. 3. 24.(금) 13:00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	책임자	과 장 이승한 (044-215-2730)
		담당자	사무관 최문성 (moonsung@korea.kr)
			사무관 김선익 (ksi1206@korea.kr)

## 부총리 주재, 「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」 개최

-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‘23.3.24(금)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 기관·학계·글로벌IB 등 거시경제·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부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영향 등 최근 대내외 거시경제·금융 여건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
- ※ 참석자 :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,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, 서은종 BNP 파리바 총괄본부장,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,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,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, 이성희 KB국민은행 채권운용본부장,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
-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, 우리 경제의 실물경제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에서,
- 최근 고강도 긴축의 여파로 실리콘밸리은행(SVB), 크레딧스위스(CS) 사태 등이 불거지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
- 아직 이번 사태가 글로벌 거시경제·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,
- 고강도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,
-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힘

- 참석자들은 주요국 통화긴축의 파급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, 우리 경제·금융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
- 최근 실리콘밸리은행(SVB)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은 각국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에 따라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나,
  - 그간의 고강도 긴축 여파가 앞으로 시차를 두고 어떤 부문에서 어떤 경로로 나타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,
  - 저금리 기간 누적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
- 한국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, 부동산 PF, 가계부채 등 국내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불안과 맞물릴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문하였음
- 긴축 영향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화될 경우, 세계·한국경제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
- 한편,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, 주요국 경기·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, 선부른 재정·통화정책 기조 전환보다는 대외 거시경제·금융 여건을 예의주시하며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
-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 재정지출 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,
- 금융·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, 부동산 PF 및 가계부채 관리,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 국내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,
- 글로벌 금융불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 정비도 병행할 것을 언급하였음